

오리데이 (52 Day) 특집

2010년 오리마을 회원사 취재 리뷰!

5월 2일, 오리데이가 돌아왔다! 오리데이를 기념하여 협회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오리마을에 소개된 우리 회원사들의 소식을 간략하게 편집하여 재구성하였다. 월간 오리마을 「소개합니다」는 축산신문 이희영기자가 직접 회원사들을 취재하여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번 달 '소개합니다'에서는 월별로 총 지면 4page에 소개됐던 회원사들의 이모저모를 알짜배기 핵심만 엮었다. 지난 2010년 13곳의 회원사들의 행적과 이희영기자의 발걸음을 리뷰 해본다. (편집 : 월별 게재 순)

2010년 1월호 소개

2009년 평가, 최고우수도압장을 가다!

코리아더커드



2009년 12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코리아더커드(대표 박영진)는 전북 남원에 자리잡고 있다. 코리아더커드는 급성장하고 있는 오리산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오리계열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오리업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코리아더커드는 1990년 오리농장인 영진축산으로 출발했으며 94년 가공공장을 준공하고 98년에는 다솔영농조합을 설립했다. 98년에 영진축산과 다솔영농조합을 합병해 (주)코리아더커드로 새로 태어났으며 2003년 녹차오리 '다향오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6년에는 70여억원을 들여 남원시 조남동 소재에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도압장을 완공하고 HACCP 인증 획득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박영진 대표는 "HACCP는 회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며 실제로 HACCP 도입 이후 급성장을 해오고 있다"며 "HACCP는 무엇보다 깨끗한 시설과 작업 환경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결국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HACCP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시설 등을 보완하다보니 처음 도압장 신축이후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는 결코 손해가 아니며 반드시 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코리아더커드는 종오리농장 확대로 육용오리를 제외한 도압, 가공, 유통 등 종합오리계열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인 오리가공업체 팜덕의 물량 확대를 위해 전북 정읍에 200억원을 투자해 올해 4월 완공, 최첨단 시설의 가공장을 신축했다. 정읍의 가공장은 기존의 오리육가공공장과는 개념부터 다른 그야말로 반도체 공장을 연상시킬 정도의 시설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정읍의 육가공공장은 국내 오리업계 최초로 무균설비, 공기정화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를 적용시켰다.



소개합니다

2010년 오리마을 회원사 취재 리뷰

2010년 2월호 소개

오리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리전문기업

모란식품



1991년 성남 모란시장에서 출발한 모란식품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최신식 설비를 갖춘 국내 최고의 오리전문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현재의 위치에 제 1공장을 완공한 이후 2004년도 오리도축업으로 최초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 2008년 HPAI 발생으로 인해 오리업계 전체가 큰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자본금 15억원을 증자해 도입장을 비롯해 가공장, 부화장, 창고 등을 신축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류장 시설도 개선함으로써 외부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오리 농

장과 부화장을 신축해 직접 운영해 월 40만수의 부화능력을 통해 원가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시간당 5천수를 도입할 수 있는 도입라인과 연결된 1차 가공장은 기존의 단순한 통오리 및 발골제품을 생산에서 벗어나 오리 신선제품을 비롯해 오리훈제 등 1차 육가공 제품은 물론 햄, 소시지 등 가공제품까지 오리관련 전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능력을 갖추게 됐다. 또 2차 가공장에서는 떡갈비를 비롯해 너비아니, 소시지 등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모란식품의 대표 브랜드 '셀덕'은 셀레늄이 다량 함유된 특수사료를 오리에 급여해 생산한 고품질 제품으로 시장에서도 차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 목우촌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국내 최고의 유통파트너를 만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모란식품 김만섭 대표는 오리를 통해 지역사회와도 함께 가려고 노력하며 오리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04년부터 1억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지역사회에 기증한데 이어 매년 1억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기증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공장 신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종교단체와 함께 푸드뱅크 공동사업을 벌였으며 2009년도에도 2억원 상당의 푸드뱅크 사업을 벌였다. 사회적 책임실천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주)모란식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2010년 3월호 소개

오랜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화인코리아



(주)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는 오리계열업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오리업계에서 항상 국내 최초, 국내 최대량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화인코리

아의 역사는 곧 오리산업 현대화의 역사와 일치한다. 1974년 태어난 화인코리아는 삼계탕과 오리고기 전문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 왔다. 이에 앞서 나원주 대표는 1965년 금성축산이란 이름으로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오리, 삼계 전문기업으로 탄생한 것은 1974년도 나주식품공업사를 설립하면서 부터다. 이후 1987년 도계장 허가를 취득하면서 식품 가공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수출 1백만불탑을 수출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다졌다. 1992년에는 국내최초로 삼계탕 통조림과 진공포장 삼계탕을 일본에 수출했으며 93년도에는 중동에도 삼계탕을 수출했다. 화인코리아가 오리 계열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화인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99년도에 '치키더키'란 브랜드를 출시하며 오리 및 삼계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오리산업의 절대 강자로 급부상했다. 2000년도 오리고기 KS규격을 획득했으며 2001년도에는 일본으로 오리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도에는 국내 최초, 최대의 초현대식 오리도압장을 설립하면서 오리업계 최초로 지난 2002년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오며 오리산업 선진화에 초석을 다진 기업이다. 화인코리아가 오리업계의 표준 HACCP 매뉴얼을 작성한 만큼 그 운영 측면에서도 화인의 노하우가 묻어 있다는 것이 나원주

대표의 설명이다. 나 대표는 "화인코리아의 도압 설비는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 특히 일본을 겨냥해 설계한 것"이라며 "최근 지어진 도압장보다 시설은 조금 뒤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측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화인코리아의 노력은 고스란히 오리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왔으며 지금도 화인코리아의 설비는 최근 지어진 일부 도압장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시설로 운영 측면에서도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화인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려 오리고기, 삼계탕 등으로 한해 500만불이 넘게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다.

2010년 4월호 소개

최남단 강진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

부성축산



부성축산(대표 이덕행)을 들어서면 새로 신축하는 축사를 포함해 총 100개가 넘는 축사가 장관을 이룬다. 최근 기계화, 자동화를 위해 축사를 대형화하는 추세와는 달리 부성축산의 축사는 50~60평 규모의 소규모 축사들로 구성돼 있다. 얼핏 보면 구형축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축사 규모를 작게 만든 것은 종오리 사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덕행 대표만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노하우는 최근 신축 중인 축사들 역시 그대로 적용시켜 기존 축사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종오리농장을 시작하면서 1차로 지은 구형축사 27개동 비롯해 2차로 지은 축사 31개동, 또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축사 50여동 까지 합치면 축사 개수만 무려 100개가 넘는다. 축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축사 한 동에 들어가는 종오리 수도 그 만큼 적기 때문에 개체별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부성축산의 종오리들 역시 축사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처음 오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오리 사육을 시작한 이 대표는 올해로 사육경력만 38년이 이른다. 그야말로 오리 산업의 산 증인이라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부성축산의 주요 사업은 종오리 사육 및 부화업이다. 하지만 또 다른 사업으로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계열화 사업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열농가를 통해 육용오리 생산도 하고 있다. 최근 몇몇 계열업체들이 오리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열화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신뢰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농장은 물론 도압장, 유통업자 심지어 농장 직원들에게조차도 신뢰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부성축산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한 거래처와 보통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된 거래처가 대부분으로 한 번도 거래처를 바꾸지 않은 곳도 있다며 신뢰 경영을 강조했다.



소개합니다

2010년 오리마을 회원사 취재 리뷰!

2010년 5월호 소개

오리전문 부화 외길 30년

해바레부화장



해바레축산(대표 최낙면)은 오리고기가 주로 약용으로 이용되던 시절부터 오리산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문 부화장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에 위치한 해바레축산의 역사는 그야말로 오리산업의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6년 축산업에 투신한 최낙면 대표는 1978년 오리 부화장을 시작한 이래 오리 전문 부화장으로 해바레축산을 운영해 왔다.

해바레축산의 특징은 농장이 여러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남 장성, 영암, 곡성, 광주 덕흥동 등 4곳에 종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바레축산을 시작했던 장성농장은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다. 농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으면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HPAI 등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 배치했다는 것이 최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로 영암 농장에 종오리를 집중 사육하고 있던 지난 2008년 HPAI 발생으로 인해 종오리를 모두 살처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 대표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농장인 영암농장은 1만평의 부지에 축사규모는 3천800평으로 암컷 기준 1만6천수 규모가 가장 크다. 또 2농장인 곡성농장은 1만1천평의 부지에 축사규모는 3천200평이며 제3농장인 광주덕흥동농장은 1천평의 부지에 850평 규모의 축사가 있다. 또, 광주 덕흥동에 위치한 제1부화장을 비롯해 벽진동의 기존 부화장 부지에 제2부화장이 완공되면서 전문 부화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2부화장은 주당 5만수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당 13만수인 제1부화장과 합쳐 주당 총 18만수의 부화능력을 갖추게 됐다. 최 대표는 “처음 부화장을 시작할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부화장들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산업이 커지고 시장이 넓어질수록 전문 화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 오직 부화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30년간 오리 부화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최 대표는 앞으로도 전문 부화장으로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6월호 소개

고품질 제품 생산기반 구축 계열화사업 탄력

성실농산

성실F&F의 김상덕 대표는 1978년 오리사육업을 시작한 이후 1985년 부화 및 종오리 농장 설립, 1999년 오리 계열화 사업을 시작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주)성실을 설립해 2007년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듬해에 친환경 인증 획득, 2009년 HACCP 인증 획득 등 고품질의 오



리고기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성실F&F영농조합법인은 40억원을 투입해 최선 설비를 갖춘 육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준공한 성실F&F 육가공공장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해 있으며 1천500여평의 부지위에 720평 규모로 지어졌다.

성실F&F는 그동안 기존 육가공공장에서 광주, 대구, 경상권 등에 통오리와 단순 가공품 위주로 단체급식소 등에 납품해 왔으나 이번 육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육가공공장에서는 일일 오리훈제 2천500kg을 비롯해 포장육 6천kg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리훈제바베큐를 비롯해 오리양념육, 포장육 등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F&F는 사육에서부터 종오리, 부화장, 가

공장 등 계열화 업체로서의 기반 구축이 완성됐다.

김상덕 대표는 육가공공장 준공식에서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을 새롭게 마련하게 됐으며 30여 계열농가들과 함께 최고의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훈제오리 생산을 위해 2대의 훈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중 2대의 훈연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훈제오리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현재 주당 6만수 규모의 가공능력을 주당 10만수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6월호 소개

황소 발자욱처럼 조금씩 앞을 향해 나가는

쌍둥이 부화장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한 쌍둥이부화장을 들어서면 농장 전면에 2층짜리 축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러나 쌍둥이부화장은 축사 형태를 보면 2층짜리 축사뿐만 아니라 농장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지었던 재래식 하우스 축사를 비롯해 개량식 하우스 축사, 샌드위치 판넬 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축사들이 있다.

이처럼 쌍둥이부화장의 축사는 다양하다. 이는 김기용 대표의 그 동안의 노력과 피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대규모로 확장하지 않고 매년 또는 몇 년

에 걸쳐 여유가 있을 때마다 큰 욕심 없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쌍둥이부화장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쌍둥이부화장이 자랑하는 것은 국내 오리농장 중에 유일한 2층짜리 축사이다. 2층 축사는 층당 430평 규모로 총 840평으로 돼 있다. 김기용 대표는 “2층 축사는 좁은 부지에 건축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며 “2층의 경우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오리들의 스트레스가 적고 1층의 경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며 2층 축사의 장점을 자랑했다.

최근 오리부화업계는 부화장 신축 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부화기 설치가 대세다. 이로 인해 국산 부화기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쌍둥이부화장의 부화기는 100% 국산 부화기로만 돼 있다.

물론 최신 외국산 부화기에 비해 시설이나 컨트롤 시스템 자체는 다소 부족한 듯 하지만 내 농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국산 부화기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부품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A/S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오리업에 종사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지금의 쌍둥이부화장을 일궈냈다. 때문에 그 동안 그려왔던 것처럼 큰 욕심 없이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김기용 대표의 말이다.



소개합니다

2010년 오리마을 회원사 취재 리뷰!

2010년 7월호 소개

작지만 강한 화제의 기업

(주)매일건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리고기 온라인 시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오리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

어 화제다.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을 비롯해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리를 판매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가신면 가신리 소재의 오리훈제 전문 기업 (주)매일건강(대표 최인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주)매일건강은 2004년도 설립돼 이제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지만 오리업계에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경기중소기업 대상 수상 등 작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강한 기업이다.

매일건강의 주력 제품은 오리훈제이며 시 등으로 인해 오

리시장은 언제든지 불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훈제닭다리, 훈제삼겹살 등도 생산하며 제품영역을 다양화시키면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분산시키고 있다.

매일건강은 2008년 시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이 때부터 체인사업에도 진출해 고정 판매처를 확보했다. 매일건강의 체인사업은 신선 초벌구이 패밀리레스토랑인 '더 구이'와 유향오리 전문점 '오리야'를 출범시켰다. 현재 '더 구이'는 서울의 쌍문동의 직영점을 비롯해 7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리야'는 4개 가맹점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시설 투자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인호 대표의 사무실 바로 옆에는 제품개발실이 있다. 제품개발실에서는 거의 매일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 최인호 대표는 항상 제품개발 직원들과 함께 한다. 제품을 개발하고 시식하고 상품성 등 모든 제품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일건강은 한방훈제오리를 비롯해 훈제삼겹살, 훈제닭다리 등 훈연기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육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 제품에 최인호라는 이름을 내걸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매일건강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2010년 8월호 소개

영남권 대표 오리가공업체

베델농산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금정산에는 금정산성과 범어사가 있는데 두 곳 모두 오리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오리고기 먹거리촌이다. 베델농산(대표 김성자)은 바로 금정산의 중턱 금정산성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베델농산은 오리농가는 물론 오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과 충북을 제외하고 20여년간 꾸준히 오리가공업에 종사하며 영남권 대표 오리기업이다. 오리업에 진출한 이후 단 한 번의 외도도 없이 베델농산이란 이름으로 오직 오리에만 전념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자랑이다. 베델



농산 설립 이후 90년대 초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흥실업이라는 도업장도 인수했으며 현재 육가공공장 인근에 자체 육가공공장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당시 농협하나로마트, LG마트, 그랜드백화점, 해태유통 등 유통점을 통해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2000

년도에 들어서서는 규모 확대를 위해 다슬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남원에 도암장(현 코리아더커드)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후 2004년도에는 '베델녹황오리' 상표를 출원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위치의 HACCP신축공장을 준공했다. 2007년도에는 가공장 바로 위편에 '베델의 백향목'이라는 직영점을 오픈해 현재 까지도 성업 중에 있다. 베델농산은 현재 10여개 계열농가에서 주당 약 3만수의 오리를 생산하고 있다. 베델농산의 오리는 '베델녹황오리'란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 '베델의 백향목'이라는 직영점을 통해 본격적인 프

랜차이즈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영남권에서 20여 년간 꾸준히 '베델농산은 100% 국산오리만 취급합니다'라는 문구로 '베델녹황오리'를 알려왔다. 김 대표의 오리사랑은 베델농산의 경영이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베델농산은 창조, 신뢰, 가치, 나눔을 경영이념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친환경기업으로 소비자는 거래처가 믿을 수 있는 투명경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오리를 통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2010년 9월호 소개

반백년의 역사를 지니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덕신농장



전남 영암에 있는 덕신농장(대표 양성현)은 한국 오리 산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덕신농장 양성현 대표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무살 약관의 나이에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양 대표는 한때 국내 첫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오리부화장을 일궈냈다. 특히 덕신농장을 둘러보면 농장의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964년도 덕신농장을 설립하면서 지은 축사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 농장입구에 있는 '덕신농장'이라고 적혀 있는 석판은 40여년을 한결 같이 농장을 지키고 있었다. 오리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서 과거 명성이 높았던 수많은 오리관련 기업과 부화장들이 사라졌지만 덕신농장은 50여년 가까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그리고 양 대표의 두 아들이 대를 잇고 있어 앞으로의 50년이 기대되고 있다. 장남인 훈석씨는 대학시절부터 10년간 양 대표와 함께 농장일을 맡아 해왔으나 5년 전부터 오리유통업에 뛰어들었으며 '오리모리'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했다. 장남인 훈석씨가 유통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맡고 있다면 차남인 흥주씨는 오리육가공(덕신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덕신유통에서 생산하는 오리는 배의 주산지인 나주, 영암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배숙성 오리'로 국내산 청정오리와 배를 이용한 숙성과정을 거쳐 오리 특유의 잡냄새를 없앤 것인 특징이다.

2009년도 경기도 용인시에 개설한 '오리모리' 직영점은 소위 말하는 대박집이다. 예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 양 대표는 최근 그 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바로 대학생에게 매년 30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것. 양 대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아들들이 각자 맡은 부문이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 미련 없이 농장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공과 유통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일도 그만 두고 사회봉사 활동과 장학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개합니다

2010년 오리마을 회원사 취재 리뷰

2010년 10월호 소개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유산장농원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 24번지에 위치한 유산장농원(대표 박성현)이 HACCP인증을 획득한 3개의 오리농장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7월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더욱이 유산장농원은 HACCP인증에 앞서 전남지역에서 2번째로 무항생제 친환경인증까지 획득할 정도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농장이다. 유산장농원의 박성현 대표가 오리업에 뛰어든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던 박 대표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오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여년전만해도 오리고기가 지금과 같이 대중적으로 인

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오리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우수하고 소비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나주 영산포에서 본격적으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유산장농원이 자리 잡고 있는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의 경우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오리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미암면의 유일한 오리농장으로 주변에 오리농장이 없어 질병 유입도 걱정 없을 정도로 청정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박성현 대표는 “남들보다 늦게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오리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 뒤지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 옆에 위치한 집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의 책꽂이에는 그동안에 기록해 왔던 농장일기와 사육일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오리를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일기형식으로 써오던 농장일기와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이후부터 작성해 오던 사육일지다. 이처럼 습관에 밴 기록 관리는 친환경인증은 물론 HACCP인증을 받을 때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박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환갑을 훌쩍 넘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리에 대한 열정은 젊은 축산인 못지않다. 특히 박 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농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2010년 11월호 소개

부화장에서 오리털 전문기업으로
다시 종합 오리전문 기업으로

정다운

전남 나주시 동수동 동수농공단지내에 자리잡고 있는 정다운(대표 이영)은 현재 도압장을 비롯해 오리육가공장, 나주와 진천에 털가공장 등을 보유한 종합 오리전문 기업이다. 정다운은 오리업체에 근무했던 이영 대표가 1995년 중오



리 농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오리업을 시작하게 됐다. 1998년부터는 오리털 가공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리털 가공 분야에서 국내 최대 업체로 성장하며 오리털 가공 전

문업체로 거듭났다. 2003년도에는 오리털 단일품목으로 삼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오리털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08년 본격적으로 오리계열화 사업에 뛰어 들었다.

나주 오리털 가공장 바로 앞에 위치한 오리도압장을 인수해 최신 설비로 증설에 오리도압장 사업을 시작했다. 또 도압장 인근에 오리훈제공장을 착공해 이듬해인 2009년도에 완공, 정다운의 오리제품을 내놓았다. 정다운의 오리제품들은 슬로우푸드를 지향하고 있다.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MSG', '무설탕', '무항생제'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오리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천연 식물유황을 첨가한 특수사료는 특허까지 획득했으며 이를 섭취한 오리는 근육내 황 함유 함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오리육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공단계에서는 나주 특산물인 배를 비롯해 다시마를 이용한 훈제가공 오리육은 정다운만의 특허 제품이다.

정다운은 국내 유일 오리털 가공업체로 전남 나주와 충북 음성에 2개 공장에서 하루 400톤의 오리털을 생산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국의 도압장들이 자체 털 가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쟁이 심해졌지만 보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세척과 건조를 거치는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털 가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가공이 아닌 오리털을 이용해 보다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12월호 소개

친환경 오리 전문

청림농원



청림농원은 오리축사로는 드물고 최신식 무창축사로 지어져 있다. 무창계사는 1년 365일 일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오리를 키우는데 적합하지만 건축비가 일반 하우스축사에 비해 많이 들어 농가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청림농원의 또 다른 특징은 오리들에게 가장 깨끗한 물을 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은나노살균을 할 경우 은의 강력한 살균작용으로 물 속에 각종 세균들을 없애주고 오리들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세포 활성화는 물론 자생력도 높여주고 해독 능력도 향상시켜 항항 건강한 오리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청림농원은 은나노 사육 농법을 특허까지 받았으며 청림농원의 오리고기의 오메가3산이 일반오리에 비해 20%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림농원의 오리고기는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육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면서 소비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림농원은 다시면의 직영농장 2곳을 비롯해 계열농가 2개를 합쳐 주당 2만5천수가량의 오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임도합해 다시면의 가공장에서 직접 가공까지 한다. 이렇게 가공한 제품들은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라는 제품의 경쟁력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청림농원은 현재 농장 자체 인터넷 쇼핑몰(www.bestduck.co.kr)과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권 대표는 “가공, 유통을 시작한지 이제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어려움이 많다”라며 “품질 좋은 오리를 생산해 중간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